



오늘의 날씨와 생활

12월 4일 수요일 음 11월 8일 (조금)

기상정보

구름 많음



제주도는 대체로 맑고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되겠다. 아침까지는 한라산과 산간 도로에 결빙 구간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등반길 안전사고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아침 기온은 7~10℃, 낮 최고 기온은 13~15℃로 나타나겠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 for the day, including temperature ranges and cloud percentages.

Table with sunrise and sunset times, moonrise and moonset times, and moon phase.

Table with 7-day weather forecast including daily temperature ranges and weather icons.

Table with health and safety weather information, including air quality and UV index.

월드뉴스

日아베 “이달 하순 한일정상회담 조정 중”

中 방문 때 양자회담 추진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3일 이달 하순 중국 방문 때 한중일 정상회담과 더불어 중국 및 한국과의 개별 정상 회담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이달 하순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정부·여당 연락회의에서 이달 15~17일 인도, 23~25일 중국을 방문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일관계는 작년 10월 말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1년 넘게 악화 일로를 걷다가 최근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결정하고,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관련 한일 협의가 진행되면서 반전의 기회를 맞았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인도 방문 때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만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과 방위협력, 지역경제에 대해 협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중일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계기로 한 양국 관계 개선이 추진될지가 초점이라고 교도는 전망했다.

연합뉴스

한리일보 제주 대표신문. 발행인·인쇄·편집인 이 용 곤 편집국장 김기현. 인터넷 서비스, 광고접수, 기사제보, 구독신청, 1989년 4월 22일 창간.

허상문의 에세이로 읽는 세상



밤으로의 여로

마당에 장귀들이 뛰어다니고 멀리서 뻐꾸기들이 애달프게 울어대는 낮의 시간이 지나고, 세상과 사람들이 적막과 고요의 시간에 빠져드는 밤의 시간이 나는 한없이 좋다.

밤은 아름다운 시간이다. 이곳에는 달과 별과 숲과 촛불이 있다. 당신이 오지 않는다면 이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아니다. 당신이 오지 않아도 이들은 의미가 있다.

그동안 내 곁에서 서성이다 떠나간 사람, 다 채우지 못하고 지나간 아쉬운 시간, 멀리 하늘나라에서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 부모님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이 새벽안개같이 솟구쳐 오른다.

사람들은 빛은 희망이고 어둠은 절망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고난 없고 그늘 없는 삶을 바라지 마라. 고난은 견딜 수 있을 만큼 주어지는 아픔이고 보람은 견뎌낸 만큼 얻어지는 기쁨이다.

그동안 내 곁에서 서성이다 떠나간 사람, 다 채우지 못하고 지나간 아쉬운 시간, 멀리 하늘나라에서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 부모님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이 새벽안개같이 솟구쳐 오른다. 세상은 깊은 침묵과 어둠에 빠져 있지만, 적멸의 시간은 나를 고요와 평화와 안식으로 이끈다.

하루가 끝나고 하루가 떠나고 어둠은 밤의 날개 위에서 퍼덕이며 내린다. 어둠은 밤의 어깨 위에 자신의 몸을 기댄다. 철새가 제집으로 돌아

가다 흘린 것들 하나 천천히 떨어지듯 마을의 집들에서는 등불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 위로 달빛들이 휩싸여오기 시작한다. 등불과 달빛은 알 수 없는 슬픔을 자아내고 서글픔과 그리움을 가져온다.

살을 바라지 마라. 울지 않고는 태어날 수 없듯이 고통과 슬픔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더라. 이 기막히게 평범한 진리를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게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사람들은 빛은 희망이고 어둠은 절망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고난 없고 그늘 없는 삶을 바라지 마라. 고난은 견딜 수 있을 만큼 주어지는 아픔이고 보람은 견뎌낸 만큼 얻어지는 기쁨이다.

앞만 보고 뒤를 보지 못하면 지혜를 구하기 어렵다. 어둠 속에서 제 몸으로 강렬한 빛을 발하는 별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이고, 절망 속의 희망은 스스로 펼쳐 일어나는 사랑에게만 진정한 희망이다.

어둠의 밤은 아침을 향하여 더욱더 깊어간다. 나는 영원으로 이어지지 못할 지금의 시간에 대해 절망한다. 그렇지만 나는 이 밤을 보내고 다시 새로운 날을 준비해야 한다.

<문학평론가·영남대 교수>

열린마당

‘버스정류장 카페’로 탈바꿈 하자



김현숙 제주시 건입동장

나는 건입동 버스 정류소인 ‘탑동푸른쉼터’에서 432번 버스를 타고 퇴근한다.

최근 제주시에서는 기존 버스 승차대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휠링쉼터(쉼터의 의미: 날씨, 공격으로 부터의 대피처)’로 탈바꿈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한 나무는 튼튼한 뿌리에서 비롯된다



고준호 서귀포시 성산읍사무소

현대의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를 대변하듯 ‘주민자치’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생각한다. 주민을 상대로한 봉사활동과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의 문화예술적 복리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등 더이상 사회문제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형태가 아닌 능동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잠시나마 여유로워 진다. 어느 날은 엄마와 아이 2명이 시장을 본 물품들을 가득 들고 행복한 모습으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고, 술을 마신 아저씨들도 즐거운 모습으로 버스정보안내 알람판을 보면서 시간을 체크하는 모습들이 여유롭고 정겨워 보였다.

휠링쉼터는 무더위와 추위를 막아 줄 냉방기, 에어컨, 발열의자와 공기청정기, 슬라이딩 도어, 와이파이와 유리기판 감지기능, 미세먼지 알러미 기능까지 점막한 종합 스마트 시스템이다.

‘주민자치’는 다른 말로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동의어를 가지고 있다. 즉, 국가라는 나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근간이 되는 ‘뿌리’가 우리 국민들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성산읍 주민자치위원회의 실례로 ‘특화프로그램’으로 읍민에게 올바른 역사적 함양을 위해 ‘일제강고진지 탐방’ 구성해 읍민들의 호평을 받았으며, 모든 읍민이 함께하는 ‘별길산책’이라는 콘텐츠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 바 있다.

‘탑동푸른쉼터’ 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은 늘 기분이 좋다. 정류소에는 버스시간표와 버스정보안내알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심플하면서 또한 유리로 돼 있어 아주 깨끗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날씨 변화와 대기오염 노출 개선을 위한 쉼터를 조성했다면 그 다음에는 버스 승차대의 분위기를 바꿔 보면 어떨까? 차와 음악, 책을 비치해 카페로 변신하는 것이다.

‘주민자치’는 다른 말로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동의어를 가지고 있다. 즉, 국가라는 나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근간이 되는 ‘뿌리’가 우리 국민들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렇듯 다양한 방면에서 주민들이 주체가 돼 스스로를 위한 행동을 하는 주민자치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현대사회의 흐름이다.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국민들은 보편적 교육을 통해 높은 수준의 지식과 역량을 가지게 됐으며 더 이상 대표자에 의한 통치가 아닌, 국민들 주체적으로 의견을 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에 강렬한 열망이 생겼으며,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산물을 낳았다고 판단된다.

풀뿌리로부터 시작해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모여 숲을 이루듯, 우리 성산읍에서부터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서는 올바른 방향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한다.

서귀포시정 소식

- 제8기 서귀포시 SNS서포터즈 회원 모집 알림
○ 모집기간: 2019. 12. 2(월) ~ 2019. 12. 13(금)
○ 활동기간: 위촉일로부터 ~ 2020. 12. 31 까지
○ 모집인원: 20명 내외
○ 지원자격: 활성화된 SNS를 운영 중인 만 19세 이상의 서귀포 거주자 또는 서귀포 소재 직장인(내·외국인 불문)
- 서귀포시를 사랑하고 시정 운영에 관심이 있는 자
- 월1회 온라인콘텐츠 제작 및 시정홍보를 개인 SNS에 공유할 수 있는 자
- 월 1회 온·오프라인 회의 또는 주요 행사에 참석이 가능한 자
* 도민기자단 및 제주시민기자단과 중복 활동할 수 없음.
○ 지원방법: 서귀포시 공식 블로그 접속 → 블로그 상단 서포터즈 모집 배너 클릭 → 신청양식 작성 및 제출
○ 지원혜택: 소정의 원고료 지급, 다양한 시정 주요정책 및 관련 행사 참여 기회 제공 등
○ 문의사항: 서귀포시 공보실 ☎ 760-2023

- 2020년 동계 대학생아르바이트 모집 알림
○ 모집기간: 2019. 12. 9(월) ~ 12. 13(금)
○ 모집대상: 2019. 12. 2(월) 현재 - 서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휴)학 대학생 - 서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의 자녀 중 재(휴)학 대학생
○ 모집인원: 88명 / 희망근무지중 동지역(본청포함) 58명, 읍·면 30명
○ 근무기간: 2020. 1. 2(목) ~ 1. 31(금) / 4주간 * 근무부서 사정에 따라 근무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인건비: 1일 80,000원(시간당 10,000원)
○ 근무시간: 근무시간: 월~금요일(09:00~18:00) * 부서사정에 따라 근무요일 및 시간 조정 가능
○ 담당업무: 배치부서 특성에 맞는 현장업무 및 행정업무 지원
○ 신청방법: 인터넷접수 - 서귀포시 홈페이지 '부서별홈페이지' 총무과/아르바이트 모집/신청'
○ 대상자 선발 일시: 2019. 12. 18(수) 15:00(예정) - 방법: 모집인원 초과 시 공개(전산)추첨 - 희망근무지별 구분 추첨
- 장소: 서귀포시청 제1청사 본관 3층 셋마당
- 발표: 전산추첨 종료 직후 서귀포시 홈페이지 게시
○ 문의처: 서귀포시 총무과 ☎ 760-2065

- 2020년 동계 청소년 트론 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알림
○ 모집기간: 2019. 12. 2(월) ~ 12. 13(금)
○ 모집대상 및 인원: 관내 중·고등학생 135명
- 아카데미 참가 120명, 진행도우미 15명
○ 신청방법: 학교로 신청 → 학교별 수합 제출
○ 행사일시: 2020. 1. 13(월) ~ 1. 17(금)
○ 행사장소: 서귀포시 평생학습관
○ 행사내용: 토론 이론 강의 및 실습 등
○ 행사문의: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 760-3841~3

- 2020년 동계 ‘청소년-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참가자 모집 알림
○ 신청기간: 2019. 12. 2(월) ~ 12. 12(목)
○ 참가대상: 관내 중학생 100명 이내
○ 운영과목: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 신청방법: 학교로 신청 → 학교별 수합 제출
○ 운영시간 및 기간: 과목당 하루 2시간
- 1차: 2020. 1. 16(목) ~ 1. 31(금)
- 2차: 2020. 2. 10(월) ~ 2. 21(금)
○ 운영장소: 관내 신청 중학교
○ 운영내용: 학습지도, 교습상담 및 인성지도, 진로상담 등
○ 운영문의: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 760-3841~3

제주시정 소식

- 2020년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 공고기간: 2019. 12. 2(월) ~ 12. 8(일) [7일간]
○ 모집기간: 2019. 12. 9(월) ~ 12. 13(금) [5일간]
○ 근무기간: 2020. 1. 2(수) ~ 1. 31(금) [20일간]
○ 모집인원: 142명(우선선발 71명, 일반 71명)
○ 방 법: 인터넷접수(제주시 홈페이지 ☎#10233; 알러미)
○ 근무형태: - 근무시간: 주5일 근무, 1일 8시간(09:00~18:00) * 근무시간은 배치부서 및 업무에 따라 주말 근무 가능
- 임금: 1일 금80,000원 *시간당 10,000원
- 담당업무: 시정현장업무지원(클린하우스 정리, 취약지 청소 등) 및 행정보조업무 등
○ 문 의: 제주시 총무과 ☎728-2044, 2045

전세 렌터카. 4년동안 타던 차를 반납하면 전세보증금채차 탈때 낸 금액을 100% 돌려 받는 새로운 렌터카 서비스. WONCAR CTS매니저 박종욱 010-9104-4742